

프랑스

안정화 프로그램

[2024~2027년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]

2024.05



KOREA
INSTITUTE OF
PUBLIC
FINANCE

본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가 발표(2024.4.17.)한
2024~2027년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(*Programme de stabilité 2024~2027*) 보고서를
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

연구책임자 | 김빛마로 재정지출분석센터장
배진수 재정제도분석팀장

공동연구원 | 이정인 선임연구원

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요 약 SUMMARY

» 프랑스 정부는 2024년 4월 17일 2023~2027년 안정화 프로그램(Programme de stabilité 2024~2027) 보고서¹⁾를 발표

※안정성장협약(Stability and Growth Pact)에 따라 유로지역 EU 회원국은 매년 4월에 EU 집행위원회에 경제·재정전망, 중기재정목표(MTO), 주요 재정정책 설명 등을 포함한 ‘안정화 프로그램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
- (경제전망) 2024년 경기 활동의 점진적 개선으로 경제성장률은 1.0%를 기록할 전망
 - 물가 안정에 따른 구매력 증대로 인해 가계 소비가 증가할 전망
 - 2025년 가계 소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1.4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- (재정전망)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는 5.1%로, 이는 전년 대비 0.4%p 개선된 수치
 -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재정지출이 감소
 -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 2월 100억유로 규모의 지출을 취소
 - 2025년 재정 개선이 지속되어 GDP 대비 재정적자는 4.1%를 기록할 전망
- (재정정책) 프랑스는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3%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의 모든 하위 부문에서 지출 통제 노력을 기울일 계획
 - 2027년까지 중앙정부, 지방공공행정, 사회보장행정의 재정이 점차 개선될 전망
 - 코로나19 관련 지출 및 인플레이션 대응 지출이 종료된 이후 지출 통제 노력을 기울여 2024~2027년 중앙정부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4.8%에서 4.3%로 개선될 전망
 - 지방정부의 지출증가율 목표를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설정해 지방공공행정 부문의 재정수지가 개선될 전망
 - 사회보장행정은 2022~2023년 흑자를 기록하였고, 이후 연금 및 실업보험 개혁의 효과로 인해 재정흑자가 지속될 전망

1) 프랑스 재무부, *Présentation du Programme de Stabilité 2024-2027*, 2024.4.17. <https://www.tresor.economie.gouv.fr/Articles/2024/04/17/article-presentation-du-programme-de-stabilite-2024-2027>

1 | 경제 전망

가 단기 전망(2024~2025년)

»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0.9%에서 2024년 1.0%, 2025년 1.4%로 높아질 전망

-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.9%로 2023년 예산법 전망치인 1.0%에 가까운 수준
 - 유럽의 경기 부진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2023년 하반기 경기는 예상보다 둔화
 -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가계 지출과 기업 투자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유지
- 2024년 경기 활동의 점진적 개선으로 경제성장률은 1.0%를 기록할 전망
 - 물가 안정에 따른 구매력 증대로 인해 가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국제 무역 회복 둔화에도 항공 분야에서의 강한 수요의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2025년 가계 소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1.4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인플레이션이 2%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소비자의 구매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
 -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고 금리가 2024년보다 하락해 수출이 개선될 전망
 - 이자율의 하락과 더불어 디지털 및 친환경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

» 물가상승률은 2024년 2.5%에서 2025년 1.7%로 안정화될 전망

- 2023년 서비스 부문과 식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은 4.9%를 기록
 - 에너지 가격은 2023년 하반기 다소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임
- 여전히 높은 서비스 부문 물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률의 둔화로 2024년 물가상승률은 2.5%로 낮아질 전망
- 2025년 물가는 더욱 안정화되어 1.7%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
 - 에너지 및 식품의 추가적인 안정화가 예상되고, 공산품 가격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둔화될 전망

»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2024년 다소 둔화되었다가 2025년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

- 2023년 경제활동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역동성이 유지됨
- 2024년도 경제 전망 부진의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은 125,000개에 그칠 전망
- 2025년에는 경제 활동의 회복에 힘입어 270,000개의 신규 고용이 예상됨
- 임금 상승률은 2024년 2.7%, 2025년 2.3%로 예상

» 2024년 이자율 상승의 효과로 기업 투자가 다소 둔화되나 2025년 개선될 전망

- 2024년 기업투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0.5%를 기록할 전망
 - 디지털 및 생태학적 전환과 관련한 투자가 지속되나, 경제 회복 부진과 이자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기업 투자 확대는 다소 제한적일 전망
- 2025년 이자율 하락과 경제 활동의 회복으로 인해 기업 투자가 0.9% 증가할 전망

» 2024~2025년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됨

- 2024년 글로벌 수요는 1.2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나, 항공 분야 수출 증가로 인해 수출 증가율은 2.1%로 전년 대비 0.6%p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2025년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유럽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율은 3.9%로 높아질 전망
- 수입 증가율은 2024년 0.8%로 낮게 나타나고, 2025년 가계 소비 증가와 투자 반등의 영향으로 3.1%로 증가할 전망

〈 표 1 〉 2022~2027년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

(단위: %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경제성장률	0.9	1.0	1.4	1.7	1.8
가계소비	0.6	1.6	1.6	2.0	2.2
일반정부소비	0.5	0.1	0.7	1.2	0.9
수입	-0.1	0.8	3.1	3.1	3.1
수출	1.5	2.1	3.9	3.5	3.5
총고정자본형성	1.1	-0.4	0.7	1.3	1.2
GDP디플레이터	5.5	2.6	1.7	1.6	1.6

출처: 프랑스 정부, *programme de stabilité 2024-2027*, 2023, Table 1, p.12, 2024.4.17.

나 중기 전망(2026~2027년)

» 프랑스는 2026년 1.7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잠재성장률인 1.35%를 넘어설 전망

- 소비와 투자 증가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
 - 물가 안정, 가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, 노동시장의 개선, 그리고 소비자 신뢰 회복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
 - 기술 및 친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가 확대될 전망
-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의 안정으로 물가 안정이 지속되며 물가상승률은 1.6%를 기록할 전망

» 2027년 내수 및 수출의 개선으로 경제성장률은 1.8%를 기록할 전망

- 특히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증가할 전망
 - 항공 및 자동차 산업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주요 수출 성장 부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
- 노동시장 개혁, 디지털 전환, 그리고 공공 부문의 혁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전망
 - 구직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실업보험 및 연금 개혁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
 -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,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
 - 보육 및 초등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공인프라 구축
- 기업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, 특히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가 중요한 동력이 될 것

» 중기 전망에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함

-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과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
- 유로존 인플레이션 감소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져, 통화정책 관련 위험은 감소하고 있음
 -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면 채무 비용 감소와 투자 및 경제활동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

2 | 재정 전망

»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지원을 시행하면서 재정이 악화됨

- 2020~2021년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지원을 시행
 -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0년 9.0%에서 2021년 경제 회복을 반영해 6.6%로 개선되었으나, 여전히 높은 재정적자 수준이 유지됨
-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조치를 시행
 - 프랑스 경제의 지속적 회복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는 4.8%로 개선

» 2023년 세수 증가 속도 둔화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가 5.5%로 다소 증가

- 2023~2027년 중기재정법에서 전망한 4.9%에 비해 높은 수치
- 재정지출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수입 부진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가 증가함
 - 경기 회복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
 -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23년 56.7%로 전년 대비 1.4%p 하락
 - 총조세부담률은 2023년 43.5%로 전년 대비 1.7%p 하락

»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는 5.1%로, 이는 전년 대비 0.4%p 개선된 수치

-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재정지출이 감소
-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 2월 100억유로 규모의 지출을 취소
 - 2024년 예산법안 발표 당시 2024년 경제성장률을 1.4%로 전망하였으나, 전망치가 1%로 낮아짐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100억유로 규모의 재정지출을 취소하는 법령을 발표²⁾³⁾
 - 미션 지출 기준으로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(Ecologie,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), 노동 및 고용(Travail et emploi), 연구 및 고등교육(Recherche et

2)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, Budget 2024 : annulation de 10 milliards d'euros de dépenses par décret*, 2024.2.23. <https://www.vie-publique.fr/en-bref/293127-10-milliards-deuros-deconomie-au-budget-2024>

3) 지출 취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「재정동향」, 2월호, 2024을 참고 바람

enseignement supérieur) 등, 환경, 고용, 사회, 교육 관련 예산의 지출이 취소됨

- 2025년 재정 개선이 지속되어 GDP 대비 재정적자는 4.1%를 기록할 전망

» 2027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3%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

- 정부의 모든 하위 부문에서의 지출 통제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
-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024년 56.3%에서 2027년 54.5%까지 하락할 전망
-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3년 110.6%에서 2025년 113.1%로 증가한 이후 2026년부터 감소 추세로 접어들 전망

〈 표 2 〉 2022~2027년 프랑스 재정 전망

(단위: GDP 대비 %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재정수지	-4.8	-5.5	-5.1	-4.1	-3.6	-2.9
GDP대비 재정지출 비율	58.1	56.7	56.3	55.6	55.2	54.5
재정지출 증가율	-1.3	-1.1	0.6	0.2	0.7	0.4
총조세부담률	45.2	43.5	43.6	43.9	44.1	44.1
GDP대비 공공부채	111.9	110.6	112.3	113.1	112.9	112.0

출처: 프랑스 정부, *programme de stabilité 2024-2027*, 2023, Table 2, p.17, 2024.4.17.

〈 표 3 〉 프랑스 구조적 재정수지 전망

(단위: GDP 대비 %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재정수지 (1)	-5.5	-5.1	-4.1	-3.6	-2.9
경기조정치 (2)	-0.6	-0.8	-0.8	-0.6	-0.3
임시적 조치 (3)	-0.1	-0.1	-0.1	0.0	0.0
구조적 재정수지 (1)-(2)-(3)	-4.8	-4.2	-3.2	-2.9	-2.5

출처: 프랑스 정부, *programme de stabilité 2024-2027*, 2023, Table 4, p.27, 2024.4.17.

〈 표 4 〉 프랑스 정부 부문별 재정수지 전망

(단위: GDP 대비 %)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재정수지 (Solde public au sens de Maastricht)	-2.4	-8.9	-6.6	-4.8	-5.5	-5.1	-4.1	-3.6	-2.9
중앙정부 (État)	-2.7	-7.6	-5.8	-5.6	-5.5	-4.8	-4.4	-4.4	-4.3
중앙행정기관 (Organismes divers d'administrations centrales)	-0.1	1.0	0.0	0.6	-0.1	-0.1	0.0	-0.1	0.0
지방공공행정 (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)	-0.1	-0.2	0.0	0.0	-0.4	-0.4	-0.2	0.1	0.4
사회보장행정 (Administrations publiques de sécurité sociale)	0.5	-2.1	-0.8	0.3	0.5	0.2	0.6	0.7	1.0

출처: 프랑스 정부, *programme de stabilité 2024-2027*, 2023, Table 5, p.30, 2024.4.17.

3 | 재정전략

» 프랑스는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3%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의 모든 하위 부문에서 지출 통제 노력을 기울일 계획

- 2027년까지 중앙정부, 지방공공행정, 사회보장행정의 재정이 점차 개선될 전망
 - 코로나19 관련 지출 및 인플레이션 대응 지출이 종료된 이후 지출 통제 노력을 기울여 2024~2027년 중앙정부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4.8%에서 4.3%로 개선될 전망
 -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율 목표를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설정해 지방공공행정 부문의 재정수지가 개선될 전망
 - 사회보장행정은 2022~2023년 흑자를 기록하였고, 이후 연금 및 실업보험 개혁의 효과로 인해 재정흑자가 지속될 전망
- 재정지출 통제 노력은 재정지출의 질적 개선, 완전 고용 달성을 위한 투자, 재산업화,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, 생태학적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와 함께 이뤄져야 함

» 2024년 2월 발표된 100억유로 규모의 지출 취소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 조치의 감소 등 지출 통제 노력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23년 56.7%에서 2024년 56.3%로 감소할 전망

- 다만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수당 지출 증가,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채무 부담 증가, 지방정부의 지속적 투자지출 증가로 인해 2024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0.6%로 2023년 -1.1% 대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

»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연금 개혁에 따라 재정 개선이 기대됨

-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연금 개혁으로 장기적인 재정 개선을 도모하고, 경제 활동 인구 증가를 통해 잠재 성장률과 재정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
-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해 연금 지급 연령을 늦추어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수지를 개선

» 최고재정자문위원회(HCFP)의 역할이 강화되어, 중기재정법(LPFP)과 당해연도 예산법(LFI)의 일치 여부를 평가

- 중기재정법에서 설정한 재정 목표와 실제 재정 수치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경우, 정부는 그 원인을 설명하고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해야 함

4 | 민감도 분석

» 2024년의 경제 전망은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프랑스 경제 전망은 글로벌 수요, 환율, 유가 등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함
 - 프랑스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2024년 1.2%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유로-달러 환율은 예측 기간 동안 1.08달러/1유로로 고정됨
 - 브렌트유 가격은 2024~2025년 평균 배럴당 82달러로 추정
- n년에 글로벌 수요, 환율, 유가가 변동하는 경우, n~n+2년의 경제 전망은 기본 전망과 달라질 수 있음(〈표 5〉 참고)
 - 프랑스 수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1%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기본 전망 대비 3년 동안 매년 0.3%p 증가
 - 미국 달러에 대한 유로화 가치가 1% 하락하면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이 증가해 경제성장률은 기본 전망 대비 n년 0.5%p, n+1년 0.9%p, n+2년 1.3%p 상승
 - 유가가 10달러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기본 전망 대비 n년 0.1%p, n+1~n+2년 0.2%p 감소
 - 단기 금리가 100bp(베이스스 포인트) 인상되면 경제성장률은 기본 전망 대비 n년 0.1%p, n+1년 0.3%p, n+2년 0.1%p 하락

〈 표 5 〉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경제 전망 민감도

(단위: %p, 명)

프랑스 수출에 대한 글로벌 수요 1% 증가	n	n+1	n+2
경제성장률	0.3	0.3	0.3
일자리 추가 창출(명)	19,000	45,000	50,000
물가상승률	0.1	0.2	0.3
GDP 대비 재정수지	0.1	0.2	0.1
유로화 대비 모든 화폐 환율 10% 하락	n	n+1	n+2
경제성장률	0.5	0.9	1.3
일자리 추가 창출(명)	24,000	90,000	154,000
물가상승률	0.6	1.1	1.6
GDP 대비 재정수지	0.1	0.3	0.4
유가 10달러 상승	n	n+1	n+2
경제성장률	-0.1	-0.2	-0.2
일자리 추가 창출(명)	-9,000	-38,000	-45,000
물가상승률	0.3	0.4	0.4
GDP 대비 재정수지	-0.1	-0.2	-0.2
단기 금리 100 베이스포인트 인상	n	n+1	n+2
경제성장률	-0.1	-0.3	-0.1
일자리 추가 창출(명)	-4,000	-33,000	-37,000
물가상승률	0.0	0.0	-0.1
GDP 대비 재정수지	0.0	-0.2	-0.1

출처: 프랑스 정부, *programme de stabilité 2024-2027*, 2023, Table 10, p.46, 2024.4.17.

5 | 전년도 안정화 프로그램과 비교

» 2024-2027 안정화 프로그램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단기 경제 전망과 재정 전망이 하향 조정됨

- 2024~2025년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고, 중기 경제 전망은 동일함
- 성장 전망 하향 조정과 세수 부진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이 모든 기간에 걸쳐 하향 조정됨
 - 202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이 0.7%p 악화되었는데, 2024년 2월 발표된 100억유로 규모의 지출 취소 등의 재정 절감 노력이 없었다면 재정수지가 더 악화될 수 있었음
 - 2027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3% 이하로 낮추는 목표는 동일함

〈 표 6 〉 전년도 안정화 프로그램과 비교

(단위: %, GDP 대비 %)

안정화 프로그램 2023-2027 (2023년 4월)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실질 GDP 성장률	2.6	1.0	1.6	1.7	1.7	1.8
실질 잠재 성장률	1.35	1.35	1.35	1.35	1.35	1.35
GDP 대비 재정수지	-4.7	-4.9	-4.4	-3.7	-3.2	-2.7
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	-4.0	-4.0	-3.6	-3.1	-2.8	-2.6
GDP 대비 공공채무	111.6	109.6	109.5	109.4	109.2	108.3
안정화 프로그램 2024-2027 (2024년 4월)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실질 GDP 성장률	2.5	0.9	1.0	1.4	1.7	1.8
실질 잠재 성장률	1.15	1.35	1.35	1.35	1.35	1.35
GDP 대비 재정수지	-4.8	-5.5	-5.1	-4.1	-3.6	-2.9
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	-4.3	-4.8	-4.2	-3.2	-2.9	-2.5
GDP 대비 공공채무	111.9	110.6	112.3	113.1	112.9	112.0

출처: 프랑스 정부, *programme de stabilité 2024-2027*, 2023, Table 14, p.49, 2024.4.17.

6 | 재정 지속가능성

» 인구 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재정 지속가능성에 위험을 초래함

- 연금 수혜자 1명당 사회보장부담금 기여자의 수는 2002년 2.1명에서 2022년 1.7명으로 감소했고, 2040년에는 1.6명이 될 것으로 전망
 -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으나,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됨
- 2023년의 연금 개혁은 경제 활동 인구를 증가시키고 공공 재정의 균형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
 - 2022년 연금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0.2%였으나, 2030년에는 -0.2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는 연금 개혁 이전 전망치인 -0.4%에 비해 0.2%p가 개선된 수치
- 2019년 보건 관련 지출은 2,080억 유로(GDP 대비 8.6%)로,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.4% 증가함
 - 2020년 이후 코로나19 관련 지출 및 보건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인해 보건 관련 지출은 계속 증가함
 - 장기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보건 지출 증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

7 | 최고재정자문위원회 평가

»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는 2024~2027 안정화 프로그램의 경제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 평가⁴⁾

- 프랑스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.0%는 IMF(0.7%)나 OECD(0.6%)의 전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, 달성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평가
 - 특히 금리를 고려했을 때 기업 투자 증가율이 높게 평가되었고, 서비스 부문 물가 안정화도 전망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음
- 2025~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가계 소비가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
- 2027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3% 이하로 줄이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조정 노력은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과 일치하지 않음
 - 거시경제 전망 달성을 위해서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제한적으로 하거나, 재정수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성장 전망을 낮추고 재정 노력을 더 크게 기울여야 함
 -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략과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됨

4) 최고재정자문위원회, "avis relatif aux prévisions macroéconomiques associées au programme de stabilité pour les années 2024 à 2027", 2024.4.17. <https://www.hcfp.fr/liste-avis/avis-ndeg2024-2-programme-de-stabilite-2024-2027>, 검색일자: 2024.4.23.